

기고

### 사계절 안전파수꾼, 군민들 앞에 약속한다

민중택 화순소방서 생활구조구급팀장



1992년, 처음 소방관이라는 이름을 갖게 된 해이다. 1991년 소방법이 개정되면서 '소방의 날'은 119를 상징하는 11월 9일로 법적 근거를 갖게 됐다. 실제로 불조심에 관한 기념행사는 1948년 정부 수립 후 11월을 불조심 강조 기간으로 정하고 각종 캠페인을 벌인 것을 시작으로 1963년부터는 내무부가 주관해 유공자 표창 등 소방의 날 행사를 개최해 왔다.

이후 필자가 임용되던 해 '소방의 날'이라는 이름으로 비로소 자리 잡게 된 것이다. 첫걸음을 같이 했기 때문에 '소방의 날'에 대한 애착이 크다. 소방조직의 역사는 오래전 조선시대로 거슬러 올라간다. 1426년 2월 15일 바람이 몹시 불던 날, 아궁이의 불씨가 바람을 타고 외부로 날아가 건물에 옮겨 붙었다. 이 불로 당시 한양 면적의 20%가 삼시간에 잿더미로 변했다. 이 다음날에도 불이나 수백 채의 집과 건물이 피해를 입었는데, 이를 계기로 세종은 피해를 구제하는 한편,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을 세웠다.

이때 신설된 것이 방화조직인 금화도감(禁火都監)이다. 이를 시작으로 1431년 최초의 소방대라 할 수 있는 금화군(禁火軍)이 만들어졌다. 이름과 형태는 조금씩 변했지만 본래의 목적과 기능에는 변함이 없었다. 그 결과 화재의 진압과 예방을 담당하는 오늘날의 소방에 이르렀고, 현재 전남 도내 소방서 전 직원들은 계절을 잊은 채 근무하고 있다.

흔히들 10월과 11월은 붉게 물든 단풍과 선선한 바람으로 등산하기 딱 좋은 계절이라고 한다. 하지만 소방관에게는 가을을 즐길 틈이 없다. 11월은 가장 바쁜 달이자, 긴장해야 하는 달이다. 오죽하면 '불조심 강조의 달'이라고 정했을까.

날씨가 추워지면서 난방기구로 인한 가정에서의 화재가 증가하고, 또 등산객이 늘어나면서 부주의로 인한 산불 발생률도 높아지는 시기가 바로 지금이다. 본격적인 겨울철에 들어서면 건조한 날씨 탓에 화재 발생 건수는 눈에 띄게 증가한다. 때문에 국가적으로 11월을 '불조심 강조의 달'로 지정해 각종 캠페인을 벌이는 한편, 11월 9일을 '소방의 날'로 기념하고 있다. 기념식은 겨울의 초입에서, 안전한 겨울나기를 위한 소방관들의 결의대회라고도 볼 수 있다.

올해도 곧 어김없이 겨울은 돌아오고 있고, 우리 전라남도 소방서 직원들은 안전한 겨울을 위해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다. 화재 예방을 위해 모든 주민을 대상으로 맞춤형 소방안전교육을 펼치는가 하면, 화재 발생 시 빈틈없이 대응할 수 있도록 소방용수시설 점검과 소방차량 및 각종 소방장비 점검, 폭설과 한파에 대비한 긴급대응태세 확립 등이 바로 그것이다.

도민의 안전하고 행복한 삶을 위해 우리 서 직원들은 11월 한 달뿐만 아니라 매일매일 '안전강조의 날'이라는 생각으로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진정한 안전 파수꾼의 역할을 할 것이다. 주민의 안전은 1년 365일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기 때문이다. 이것이 제60주년 소방의 날을 기념해 군민들과 할 수 있는 가장 큰 약속이다.

오늘 하루만이라도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 한시도 긴장을 놓치지 않고 국가와 국민을 위해 헌신하는 소방관을 한 번쯤 생각해보는 날이 되었으면 좋겠다.

<b>호남신문</b> i-honam.com	<b>대표전화 (062) 229-6000</b> 광주 서구 운천로 213 스키야드 309호
회장·발행인·편집인 <b>김 평 호</b> 편집국장 직무대리 서 선 욱	
동부취재본부	전남 순천시 충효로 63 2호 (061) 905-2011
서울취재본부	서울시 노원구 공릉로 62가길 16-1 (02) 2238-0003
기사제보 (062) 222-2580	광고적통 (062) 228-2580 팩스 (062) 222-5547
등록번호 광주가00021 (일간) / 1946년 4월 창간 / 구독료 월 10,000원 1부 500원 인 쇄 mpn	
본지는 신문 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합니다.	



### 물 절약 대책을 세우고 추진하자

정기연 전영암 신북초등학교 교장

우리나라는 유엔이 정한 물 부족 7개국에 속하지만, 한해(旱害) 극복을 위한 수자원 보호와 관리에 힘써서 하늘에서 내린 빗물을 모아 쓰기 위해 댐을 만들고 보를 만들어 수자원을 저장해 사용하고 있으며 상수도 시설이 도시는 물론 농촌까지 시설이 잘되어 있어 선진국 복지국가라 자랑한다.

인간은 물이 없으면 단 하루도 살아갈 수 없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물의 고마움에 대해서 잊어버리고 물을 아껴 쓸 줄을 몰라 해마다 막대한 자원이 그냥 버려지고 있다. 우리나라는 6-7월 장마철에 강수량 많아 댐이나 보의 물을 채워야 하는 데 올해는 중부지방을 제외하고 남부지방은 비는 왔지만, 강수량이 적어 지금 상수원인 저수지 물이 바닥에 가깝다. 이것을 공개한다면 물을 절약 해야겠다는 생각이 나온다.

그러므로 지자체는 물 절약에 대한 대책을 세우고 추진해야 한다. 지구 온난화로 인한 기후변화가 가뭄, 홍수 등 기상이변을 일으키며, 우리나라의 경우 8, 9월 내린 중부지방 집중호우와 태풍 등의 영향으로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가뭄이 해갈됐으나 광주를 비롯해 전남 등 일부 지방은 여전히 지난해 겨울부터 역대 최악의 가뭄이 이어지고 있으며 시골의 웅덩이 샘물은 말랐다.

올해는 겨울과 봄철 및 여름 가뭄이 지속되며 장마 기간인 여름에도 비의 양은 극히 적었다.

예년에는 1월부터 10월까지 강우량이 1,500mm로 저수율이 약 80%였지만, 올해는 669mm가량으로 저수율이 겨우 35%로 평년 대비 강우량이 절반 가량에 그쳤다.

광주광역시에는 극심한 가뭄으로 수원지에 물이 고갈돼 시민들의 고통이 현실로 다가오고 있어 그 어느 때 보다 물 절약의 필요성이 강조되는 시점이다. 2021년 광주 상수도 현황에 따르면 광주시 국민 1인당 1일 급수량은 328ℓ로 프랑스(214ℓ)와 영국(279ℓ) 등 선진국보다 많은 양의 물을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렇게 볼 때 물 과소비가 지속되면 향후에는 물 부족 현상을 겪을 것이다.

그러므로 시민들이 누릴 수 있는 물 복지를 위해서는 수질과 수량의 두 마리 토끼를 잡아야 한다. 수량이 부족한데 수질을 논할 수 없고, 수질은 좋은데 수량이 부족하면 아무 의미가 없다. 광주시는 낮은 저수율에도 불구하고

하고 상수원의 안정성 확보 및 수도물의 안정적 공급을 목표로 시행하는 조류경보제가 동북호에서 아직은 발령되지 않았다.

광주시는 동북호 및 주암호 등 상수원 수질관리와 정수장에서 수질관리 및 가정까지 공급되는 공급과정별 수질관리를 철저히 하고 국제 공인시험기관(KOLAS) 인증으로 수질검사 관련 국제적 수준의 시험 검사 기관으로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가뭄이 지속되고 있는 현재는 우리 지역 사회의 생활용수 등 물 절약을 통한 용수 확보 노력도 시급하다. 물을 절약하기 위해서는 가정에서는 주방에서 설거지나 채소, 과일을 씻을 때 물을 받아서 씻으면 평소 사용량의 약 60% 정도의 물 절약과 세탁기는 빨랫감을 모아 두었다 세탁하면 약 30%, 샤워 시간을 줄이고 양치질할 때 물컵을 사용하면 평소 사용량의 60-70% 정도를 아낄 수 있다.

가정에서 사용하는 물은 주방에서의 물과 화장실에서의 물인데 대부분 가정의 화장실에는 좌변기가 설치되어 있고 12ℓ의 물통이 있으며, 박희희 대통령은 물 절약을 위해 화장실 물통에 벽돌 한 장씩 넣어 물을 절약하고자 했다.

광주광역시 진월동 거주 서영섭(93세) 씨는 화장실 물통 절수기 발명으로 발명특허를 획득했으며 설치되어 있는 물통에 절수기를 삽입하면 12ℓ의 물통에서 4ℓ(1/3) 물로 노폐물을 완전하게 처리하는 획기적인 절수 장치로서 설치된 물통에 발명품 절수장치를 하면 벽돌 16장의 물이 절약된다.

전국적으로 화장실 물 절약을 위해 환경청에 화장실 절수장치를 건의했거나 환경청 관계자는 절수 등급제를 시행해(1등급 4ℓ, 2등급 5ℓ, 3등급 6ℓ) 가장 절수효과가 좋은 1등급 절수기를 권장하지 않고 2-3등급을 인정하고 있다. 그러므로 지자체는 화장실에서의 물 절약을 위해 1등급(4ℓ) 절수기 장치를 하여 물을 절약했으면 한다.

최악의 가뭄으로 시민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시민들이 물 아끼기에 동참하고 가뭄 극복을 위해 지방자치단체 등 각 기관이 창의력을 발휘해 혼연일체가 되어 물 절약 대책을 세워 추진해 우리가 직면한 가뭄을 반드시 극복해야 한다.

기고

### 현장 상황을 영상으로 전달하는 '보이는 112신고'

최영기 고흥경찰서 112치안종합상황실 경감

대한민국 대다수 국민들은 범죄신고 대표전화 "112"라고 모두 알고 있을 것이다

하지만 최근에는 112신고가 복잡·다양해 지고 있어 경찰에서는 21년 1월부터 신고자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현장을 실시간으로 볼 수 있는 '보이는 112' 시스템을 도입하여 활용하고 있는데 무엇보다도 신고자의 도움이 필요하다.

범죄현장에서 신고자가 112에 전화하여 경찰에 도움을 요청하고 싶지만 주변 상황이 범인에게 발각될 염려가 있거나 말할 수 없는 경우는 음성으로 신고할 수 없으므로 신고자 휴대폰과 문자를 활용하여 신고내용과 실시간 범죄현장을 확인할 수 있다



절차는 간단하다. 신고내용을 말할수 없는 상황에서 신고자가 휴대폰으로 112 버튼을 누르면 신고 접수자가 위험한 상황이거나 말할수 없는 것으로 판단될 경우 신고자에게 휴대폰 숫자 버튼을 2회 터치(속칭 푼푼 기능)하도록 유도하고 경찰에서는 신고자 휴대폰으로 URL 문자를 발송하면 신고자가 다시 문자를 열어 링크·접속해 주는 절차를 거쳐 112종합상황실에서 범죄현장을 실시간으로 볼수가 있다.

또한 신고자의 핸드폰 위치추적 기능을 병행하여 작동할 경우 현장으로 출동하는 경찰관들에게 보다 더 많은 정보를 제공할수 있지만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급박한 시민이 최첨단화 된 112신고 혜택을 받을수 있도록 하위 또는 장난신고가 없는 국민들의 의식이 선결되어야 할 것이다.

### 호남신문 후원 및 회원제 시행합니다

결코 쉽지 않은 길이지만 저희가 개척하겠습니다. 지금보다 건전해질 수만 있다면 어렵지만 마다하지 않겠습니다. 외부로부터의 어떠한 압력이나 간섭에서도 자유롭기 위해서라면 당장의 손익에 급급해 하지 않겠습니다.

호남신문의 후원 및 회원제를 시행합니다. 액수의 많고 적음을 떠나 회원 여러분의 피와 땀이 배인 후원금을 소중히 접수하겠습니다. 후원금으로 광고의 일부를 대체해 광고주의 유무형 압력 등 편집권 침해로부터 탈피해 자유로운 제작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호남신문은 후원 및 회원제의 시행으로 왜곡되지 않은 정론을 펼치는데 지역언론의 선봉장 역할을 자임합니다.

전국 일간지 최초로 복지면을 할애해 사회적 약자와 취약계층의 권익향상에 힘쓰고 있는 호남신문은 후원회원제를 통해 보다 더 굳건하게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당장 눈에 띄는 획기적인 성과를 기대하겠습니까마는 한 걸음 한 걸음 내딛다보면 작은 내가 모여서 강을 이루듯 우리가 지향하는 목표점에 다다를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호남신문은 후원 회원들의 자발적 후원으로 운영되는 시스템을 차차 정착시켜 나갈 것입니다. 호남신문의 작지만 큰 변화의 몸부림에 시도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동참을 기대합니다.

